아시아교육연구 20권 4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9, Vol. 20, No. 4, pp. 985-1010.
https://doi.org/10.15753/aje.2019.12.20.4.985

중학생의 개인, 가정, 학교 문화자본이 고교 진학 후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박보경(朴保京)**
배상훈(裵尙勳)***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 학생의 개인, 가정, 학교 문화자본이 그들이 성장하여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시점에서의 진로성숙도와 그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의 개인 문화자본이 진로성숙도 및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학생이 속한 가정 및 학교 문화자본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보았다. 독립변인은 학생 개인, 가정, 학교 문화자본으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인은 진로성숙도와 하위 요인인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 자신에 대한 지식, 진로행동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상호작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문화자본에서 학생의 독서 태도, 가정 문화자본에서 부모와 문화소통 정도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 문화자본에서 독서 태도가 일에 대한 태도 및 자신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쳤고 문화예술 동아리의 참여가 계획성 및 진로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가정 문화자본에서 부모와의 문화소통 정도가 계획성, 자신에 대한 지식, 진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문화자본에서는 학교 차원의 동아리 활성화 정도가 자신에 대한 지식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셋째, 개인 문화자본이 진로성숙도와 그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가정 및 학교 문화자본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2학년 시점의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자본의 형성이 고등학교 2학년 시기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어 : 문화자본, 진로성숙도, 위계적 회귀분석, 조절효과

* 본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
*** 교신 저자,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Ⅰ. 서론

진로 선택은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진로와 직업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갖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성숙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존감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자아를 실현하는 데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임은미, 2004). 따라서 조기에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찾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과 활동을 펼치는 것은 중요하다.

성공적인 진로 선택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시기에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과 전공을 선택하기 위한 전 단계이고, 이 시기에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가 성공적인 대학 생활은 물론 미래 진로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의 진로성숙은 단기간 이루어지지 않으며, 진로와 관련된 태도와 역량은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과 의도적인 경험을 통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정부가 중학교 단계에 자유학년제를 도입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중학생부터 진로의 발견과 개발을 위해 여러 활동들을 할 때 고교 진학 후 진로성숙도가 높아지고, 이는 다시 대학과 전공 선택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학생 시절 이루어진 활동과 경험이 고등학생이 된 후 진로성숙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 학생 개인에게 체화된 문화자본과 환경요인으로서 가정 및 학교 차원의 문화자본 수준이 3년 후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시점에서 진로성숙도와 그것의 하위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문화자본과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가설은 Super의 개인-환경 상호작용 이론에 기반을 둔 것이다. Super(1955)에 따르면, 개인이 어떤 환경과 상호작용 하느냐는 그의 진로 개발 및 선택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보면, 중학생 시절 개인 차원의 문화자본 그리고 개인이 속한 환경으로서 가정과 학교 차원의 문화자본은 고등학생이 된 후 학생의 진로성숙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화자본이란 '사회적으로 소유하거나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적 취향, 기술, 지식 혹은 관행'을 말한다(Bourdieu, 1986). Bourdieu가 발전시킨 문화자본 이론은 '장(field)'과 '아비투스(habitus)'를 핵심 개념으로 한다. 여기서 아비투스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생활양식, 사고, 습관 등이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것'을 말한다(Bourdieu, 1986). 개인에게 형성된 아비투스는 개인이 속한 장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변화하거나 유지되며 축적되고(Bourdieu & Wacquant, 1992), 개인의 자아 개념 및 자기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성숙한 자아 개념 및 자기 이해는 진로성숙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이론적 가정과 추론을 본 연구의 맥락에 적용해 보면, 학생은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하면서 1차적으로 아비투스를 형성하고, 학교에서 교

우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다시 아비투스를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아비투스는 개인의 자아 개념 및 자기 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진로성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가정이다. 한편, 본 연구는 이상의 개인-환경 상호작용 이론을 더욱 확장하여, 환경으로서 가정과 학교의 문화자본 수준에 따라 개인 차원의 문화 활동과 경험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보았다. 즉 개인 문화자본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 대한 가정과 학교 문화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교 시절 학생이 가진 문화자본, 가정 및 학교에 축적된 문화자본의 정도는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진로성숙도 및 각 하위 요인(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 자신에 대한 지식, 진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중학교 시절 학생이 가진 문화자본, 가정 및 학교에 축적된 문화자본의 정도가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진로성숙도 및 각 하위 요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학생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가정 및 학교에 내재된 문화자본의 수준에 따라 다른가?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

Super(1953)에 의해 처음 제안된 개념인 진로성숙도는 '한 개인이 각 연령 단계에서 달성해야 할 진로발달 과업(career development tasks)을 준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Super, 1955). 그는 진로성숙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장기(출생~14세), 탐색기(15세~24세), 확립기(25세~44세), 유지기(45세~65세), 쇠퇴기(65세 이후)의 5단계를 거쳐 진로가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Crites(1961)는 Super(1953)의 진로성숙의 개념을 다소 수정하였다. Super(1953)가 직업 선택의 결과에 중점을 두었다면 Crites(1961)는 결과보다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즉, Crites(1961)는 진로성숙을 동일 연령층 학생들과 비교하여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의 정도를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개념화하였다. 한편 Ginzberg(1972)는 발달적 접근법을 직업선택 이론에 도입하였다. 즉, 인간 신체와 정신이 발달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직업도 어려서부터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개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oyt(1977)는 진로성숙을 진로발달 과정의 한 지점으로 보았고, 발달적 연속선상에서 현재의 위치와 그 나이에 기대되는 것 사이에서 그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성취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Fouad(1988)은 진로성숙도를 개인이 자신의 연령대에서 제시된 진로 관련 문제들을 직면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도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는 한 개인이 발달단계에서 진로

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준비된 정도를 의미한다.

진로성숙도 측정을 위한 하위 구성요소들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다. Super(1963)는 진로인식 성숙의 구성요인을 진로계획, 진로탐색, 의사결정, 일의 세계에 대한 지식,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지식이라는 5가지의 요인으로 나누어 진로발달검사(Career Development Inventory)를 제작하였다. 이 진로발달검사를 기반으로 Crites(1978)가 개발한 진로성숙도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는 현재까지 진로성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측정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하위영역으로는 태도척도와 능력척도로 나누어지며, 태도척도는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으로 능력척도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정, 계획, 문제해결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적합한 진로성숙도 검사들을 개발하였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Crites(1978)의 진로성숙도 검사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교육개발원(1992)에서 제작한 진로성숙도 검사이다. 그 후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은 Crites(1978)의 진로성숙도 검사가 예시를 보여주고 답을 찾아내는 능력형 검사로 이루어져 제대로 된 측정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신뢰도문제와 능력형 검사가 언어능력과 지능 점수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진로성숙도를 자기 보고방식과 언어능력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진로성숙도 검사가 개발되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의 진로성숙도 검사의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태도, 능력, 행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태도는 독립성과 일의 중요성 및 직업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로, 능력은 자기이해와 진로 정보 활용 및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선호 직업에 대한 지식으로, 행동은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으로 구조화하고 있다.

2.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1) 문화자본의 개념

인간은 독서, 미술작품 감상, 음악회 감상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각자의 문화적 취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취향에 계급적 속성이 있다고 보고, 개인의 문화적 취향을 문화적 자산의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 프랑스 학자 Pierre Bourdieu(1986)의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이론이다. Bourdieu(1986)는 음악적 소양에서부터 스포츠, 사진 찍기, 음식을 먹는 일 등과 같은 모든 문화적 행위나 취향이 교육수준 및 출신계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Bourdieu(1977)은 문화자본의 존재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태도나 취향 등 개인의 내적인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체화된 문화자본(embodies state)과 그림이나 문학 등 재화의 형태로 존재하는 객체화된 문화자본(objectified state), 그리고 졸업장 및 학위를 지칭하는 제도화된 문화자본(institutionalized state)이다.

또한, Bourdieu(1979)은 문화자본의 습득 경로에 따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자본과 개인이 습득한 획득자본으로 구분하였다. 상속된 문화자본은 가정에서 사회화 과정에서 거쳐 습득되어 온 문화적 성향과 태도 등을 의미하며, 획득된 문화자본은 공식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 자질을 일컫는다(Bourdieu, 1979). 가정은 1차 사회화 과정 속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자본의 형태로 문화자본을 습득하고(Bourdieu, 1986), 학교에서는 2차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무의식적 계획들이 의식적으로 전달하는 일을 교육과 교육제도가 맡고 있으며(조광익, 2012), 획득자본의 형태로 문화자본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속자본의 개념에서 부모가 문화자본을 많이 소유한 자녀는 그렇지 못한 자녀보다 문화자본의 습득이 용이하다. 이는 낮은 수준의 연령으로부터 사회화 과정이 중요하며, 상속된 문화자본의 효과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장미혜, 2000b). 이에 반하여, Erickson(1996)은 부모가 보유한 문화자본보다 학생이 보유한 문화자본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는 학생의 성장발달과정에서 사회화의 중요성에 관해 역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들이 학생의 문화자본 함양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교육의 의미는 예술적 교양 및 취향 형성에 기여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역 가운데 획득된 문화적 자본을 설명하는 맥락이기도 하다.

Bourdieu(1986)의 문화자본 이론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장(field)과 아비투스(habitus)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Bourdieu(1986)가 강조한 장과 역동적인 아비투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문화자본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설정하였다. 먼저 장은 자율적인 영역으로 각 해당 장은 고유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인간은 개인적인 공간에서만 생활하지 않으며 가정 및 학교 등 객관적 사회적 공간에서 활동한다. 이러한 사회 공간은 다양한 장, 예컨대 정치의 장, 종교의 장, 학문의 장, 예술의 장, 교육적 장 등으로 다원화 된다. 다음 아비투스는 특정한 환경에 의해 형성된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사고, 인지, 판단과 행동 체계를 의미한다. 습관(habit)이 기계적, 반복적이라면 아비투스는 고도로 생성적이여서 스스로 변동을 겪으며 객관화된 논리를 생산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아비투스는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태도, 지각과 사고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자동적이며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고 육체에 각인되어 의식과 언어의 영역까지 확장된다. 이러한 아비투스는 개인이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경험의 산물이며 일상 속에서 스스로 생성한다. Bourdieu(1986)는 아비투스의 개념은 지속적이지만 유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때 유동성에 대하여 아비투스와 장은 서로 상호 형성한다고 하였다. 즉, 장과 아비투스는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속성을 갖는 동시에 변화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시점에 학생의 개인, 가정, 학교의 문화자본이 그들이 고교에 진학한 시점에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가설을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다. 진로성숙도는 개인에게 형성된 자아 개념으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개인과 개인이 소속된 장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아비투스가

진로성숙도의 기본 전제인 자아개념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학생이 문화적 환경으로서 어떠한 장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 아비투스가 각자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학생이 위치해 있는 장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에게 의미있는 장은 1차적 사회적 공간인 가정과 2차적 사회적 공간인 학교로 설정하였다. 즉, 학생이 소속되고 위치해 있는 가정과 학교는 그들의 장이며 아비투스와 함께 역동적 상호작용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세히 말하면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가족구성원인 부모와 어떤 문화적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학교에서 교우들과 어떠한 문화적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은 상이한 아비투스를 형성하고 진로성숙의 수준 및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적 환경으로 가정과 학교의 장에 따라 아비투스는 다르게 발현되고 각자 생성된 아비투스는 개인의 언어를 포함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진로성숙도의 기본 전체인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쳐 진로 성숙의 수준 및 정도까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2) 개인, 가정, 학교 문화자본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후천적으로 획득하여 체화된 문화자본을 중심으로 학생 개인, 가정, 학교 문화자본 세 가지로 세분화하였다(〈표 1〉).

〈표 1〉 문화자본 구성

개인 문화자본	가정 문화자본	학교 문화자본
• 독서시간 • 독서에 대한 태도 • 문화활동 경험 • 문화예술 동아리참여	• 부모와 문화활동 • 부모와 문화소통	• 재학생 문화자본 평균 • 동아리활성화 정도

(1) 개인 문화자본

본 연구에서 개인 문화자본이란 학생이 스스로 독서 및 문화활동 그리고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수행하고 경험함으로써 학생에게 체화된 문화적 소양 및 태도를 의미한다. 즉, 학생 개인 스스로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체화된 문화자본을 말한다. Dimaggio(1982)는 문화자본의 실증적 연구를 위한 측정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그는 개인의 문화자본만을 측정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하였고, 태도, 활동, 예술에 대한 정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개인의 문화자본을 측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문화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독서시간, 독서에 대한 태도, 문화활동 경험,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여부를 적용하였다.

(2) 가정 문화자본

본 연구에서 가정 문화자본이란 가정을 구성하는 부모와 자녀가 다양한 문화활동이나 체험을 함께 하면서 가정이라는 하나의 유기체에 쌓이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적 취향, 태도, 분위기 등을 의미한다. 가정 문화자본은 자녀의 문화자본과 상호작용하고 자녀의 문화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진로 발달과 성숙을 이끄는 환경 요인이다. Vincent와 James(1999)는 가정 문화자본을 학생의 미술관, 박물관 관람횟수와 음악, 예술 등을 배운 경험, 집안의 교육적 자원 구비여부로 측정하였다. 국내에서 김소영(2007)은 본인과 부모의 문화적 관심, 가정 문화 활동, 독서 습관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 문화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와 함께 하는 문화활동과 부모와 함께 하는 문화관련 소통을 적용하였다.

(3) 학교 문화자본

본 연구에서 학교 문화자본은 중학교의 재학생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으로서 학교 구성원이 가진 문화자본의 전반적인 수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는 학생을 둘러싼 문화적 공간이자 심리적 환경으로 학생의 문화자본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학생의 문화자본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학생의 진로개발 및 발달을 이끄는 환경요인으로 인식된다. 학교 문화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재학생의 총체적 문화자본수준과 재학생의 동아리활동 활성정도를 측정하였다. 재학생의 총체적 문화자본 수준은 학교별 독서시간, 독서에 대한 태도, 문화활동의 재학생의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동아리활동 활성도는 교사가 인식한 동아리 활성화 정도이다.

3. 문화자본과 진로에 대한 선행 연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Bourdieu(1986)의 문화자본 이론에 근거하여 가정 및 학교에서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아비투스라는 무의식적인 체화된 문화자본을 형성하고 이는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쳐 결국 진로 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화자본이 학업성취도, 학생역량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문화자본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영역을 확장시켜 문화자본과 '진로'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문화자본과 진로에 관련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전경애(2001)는 가정의 문화자본이 학생의 직업선택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가정에서 학생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자본 변인은 학생의 직업선택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2007)은 대학생의 가정 문화

자본과 직업인식 및 직업인지도 관계 분석을 통해 문화자본에 따라 직업의 성역할 유형과 지위수준을 인식하는 데 차이가 있으며, 특히 직업의 성역할 유형 인식에 있어서는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특성에 치우치기 보다는 보통을 향해 있고, 지위수준 인식에 있어서는 예술적 직업에 대해 지위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예슬, 오현석(2011)은 문화자본을 소유할수록 직업포부 수준이 안정화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계급 재생산의 특징을 가진 문화자본의 속성으로 문화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자신이 속한 집단의 지위에 맞는 안정화된 직업지위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정선영(2015)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참여수준이 자기주도적 진로의사결정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 시기와 중학생 시기에 공통적이었다. 엄미선, 한상미(2017)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개인 문화자본이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문화자본의 효과와 관련한 대다수의 연구는 학업 성취나 계급 재생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장미혜, 2002a; 조은, 2001; 최샛별, 2000a).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부모의 문화적 취향을 중심으로 측정하였고, 부모로부터 상속된 관점에서의 문화자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후천적으로 획득하여 체화된 문화자본을 중심으로 학생 개인, 가정, 학교 문화자본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문화자본이 오랜 시간 사회과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자본의 축적성 측면을 간과한 채 횡적인 연구로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의 개인, 가정, 학교 문화자본이 학생이 성장하여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시점의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 1차(2005년, 중1), 2차(2006년, 중2), 5차(2009년, 고2)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년도에서 부모의 설문자료, 2차년도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설문자료를 통해 독립변인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5차년도 자료를 통해 종속변인을 측정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는 2005년 전국 150개 중학교 1학년 학생 6,9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 유지율은 1차년도 98.8%, 2차년도 95.5%, 3차년도 95.1%, 4차년도 91.1%, 5차년도

78.3%로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 중에서 결측치(missing value)와 학생 특성 변인인 1차년도 학생의 부모 가계소득과 학력의 결측치는 제외하였다. 그 후 5차년도 학생을 기준으로 학부모, 교사 자료를 학생 고유번호와 매칭(matching)한 결과 최종적으로 총 147개 중학교 3,039명의 학생 자료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중 대체(Multiple Imputation) 방법으로 결측치를 처리하였다. 한편, 연구 대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1,582명(52.1%), 여학생이 1,457명(47.9%)이었다.

2. 연구변인 및 측정 도구

1) 종속 변인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은 고등학생 단계의 진로성숙도이다.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는 한국고용정보원(2006)이 개발한 '청소년용 진로발달 검사' 문항의 일부를 사용하여 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측정하였고, 하위요인으로는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 자신에 대한 지식, 진로행동 등 4개 요인이 포함되었다. 총 22개 문항이 사용되었고, 각 문항은 모두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이 종속 변인을 얼마나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내적 일관성 계수인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값을 살펴보았다. 대체로 크론바흐 알파값은 0.7이상일 때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진로성숙도 전체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0.889이고 하위 요인별로는 계획성이 0.785, 일에 대한 태도가 0.587, 자신에 대한 지식이 0.795, 진로행동이 0.825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독립 변인

본 연구의 독립 변인은 학생 개인 차원의 문화자본, 가정 문화자본, 학교 문화자본이다. 먼저 학생 개인 문화자본은 〈표 2〉와 같이 총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독서시간'은 주당 독서시간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독서에 대한 태도'는 "평소 얼마나 독서를 하는가" 등 총 9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문화활동 경험'은 영화, 음악회 등 문화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등 총 8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두 변인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화예술동아리 참여여부'은 학생이 미술 동아리, 음악 동아리와 같은 문화예술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상 개인 문화자본 변인에 대한 문항수, 신뢰도 계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연구변인 학생 개인 문화자본 구성 및 신뢰도 계수

구분	변인	문항수	신뢰도
개인문화자본	독서시간	1	-
	독서에 대한 태도	9	0.842
	문화활동경험	8	0.820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	1	-

다음으로 가정 문화자본은 '부모와 문화활동'과 '부모와 문화소통' 총 2개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와 문화활동'은 가족이 함께 얼마나 문화활동(영화, 미술관, 음악회 관람 등)을 하는지 등 총 2문항의 평균값이다. '부모와 문화소통'은 부모와 함께 소통하는 정도(정치 및 사회문제 토론, 영화 토론 등)를 묻는 2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두 변인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가정 문화자본 변인에 대한 구성문항과 신뢰도 계수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연구변인 가정 문화자본 구성 및 신뢰도 계수

구분	변인	설문지	문항수	신뢰도
가정문화자본	부모와 문화활동	부모	2	0.722
	부모와 문화소통	학생	2	0.699

마지막으로 학교 문화자본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총체적 문화자본 수준'과 '해당 학교의 동아리 활성화 수준' 총 2개의 변인을 적용하였다. '재학생의 총체적 문화자본 수준'은 앞서 측정한 학생 개인의 문화자본(독서시간, 독서에 대한 태도, 문화활동 경험)을 학교 수준에 평균한 값을 활용하였다. 세 가지 변인은 모두 다른 척도를 가지므로 이를 동일한 척도로 표준화하기 위해 Min-Max 표준화 방법을 활용하여 값을 산출한 후 학생별로 그 값들을 합산하였다. Min-Max 표준화 방식은 지수값을 동일한 범위, 즉 0과 1 사이에 있도록 표준화하거나 혹은 특별한 공식을 사용해 최댓값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Min-Max 표준화 방법은 아래와 같다.

$$Z_i^j = \frac{X_i^j - \min(X^j)}{\max(X^j) - \min(X^j)}$$

i: 학생 $i(i=1,\ldots,n)$

j: 학생 개인 문화자본 변인 ($j=1$: 독서시간, $j=2$: 독서 태도, $j=3$: 문화활동 경험)

$$Z_i^M = \sum_{j=1}^{3} Z_i^j / 3$$

Z_i^M: 학생 i의 개인 문화자본(독서시간, 독서에 대한 태도, 문화활동 경험) 평균

$$X_k^{\text{재학생 문화자본 수준}} = \sum_{i=1}^{n_k} Z_i^M / n_k$$

$X_k^{\text{재학생문화자본수준}}$: 학교 k의 재학생의 총체적 문화자본 수준($k=1,...,K$)

$n = \sum_{k=1}^{K} n_k$, n_k: k학교의 학생 수

'학교의 동아리 활성화 수준' 변인은 교사가 인식한 학교의 학생 동아리 활성화 정도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학교 문화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연구변인 학교 문화자본 구성

구분	변인	설문지	설문내용 및 측정방법
학교 문화 자본	재학생의 총체적 문화자본	학생	학교 재학생의 척도화한 개인 문화자본 독서시간 + 독서 태도 + 문화활동 경험의 평균
	재학생의 동아리활성화 수준	교사	학교에서 학생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됨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3) 통제 변인

본 연구는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성별', '가계소득', '부모의 학력', '학업적 자기개념', '부모의 학업지원', '교우와 진로대화' 등 총 6개 변인이 포함되었다. 가계소득은 학부모가 응답한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으로 측정하였고, '부모의 학력'은 부모의 학력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학업적 자기개념'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대해 묻는 총 7개의 문항으로 측정한 값을 사용하였고, '부모의 학업지원'은 부모의 학생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을 묻는 총 8개의 문항, '교우와 진로대화'는 친구와 진로 및 진학 관련 대화에 대하여 묻는 총 3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3. 분석 방법

첫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징과 독립변인의 정규성 만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변인들의 평균치(mean)를 산출하여 집중화 경향치(measures of central tendency)를 살펴보았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등을 산출하여 변인의 산포도(dispersion)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종속 변인과 독립 변인 간에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속형 변인들에 대한 상관분석을 수행하고, 범주형 변인에 대해서 평균차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상

의 분석에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둘째, 진로성숙도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독립 변인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산팽창요인(variation inflation factor, 이하 VIF)값과 공차 한계(tolerance)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추정된 모형에서 크게 벗어나는 이상치(outlier)를 확인하기 위하여 스튜던트-잔차(studentized residual)를 산출하여, 절대값 3 이상의 자료는 제외였다.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와 그 하위요인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5번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분석에서 학생(1단계)부터 가정(2단계), 학교(3단계) 문화자본과 상호작용 효과(4단계)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였다. 즉, 모형1은 학생 개인의 문화자본 변인만을 투입한 것이고, 모형2는 가정의 문화자본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것이며, 모형3은 학교의 문화자본 변인까지 투입한 것이다. 각 모형별로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β) 및 설명력(R^2)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모형4를 만들어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개인 문화자본 변인(4개)과 가정 문화자본 변인(2개)의 상호작용항 그리고 개인 문화자본 변인(4개)과 학교 문화자본 변인(2개)의 상호작용항을 단계적(stepwise)으로 투입하여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그것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β) 및 설명력(R^2)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구체적 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1 : 개인 문화자본(4개)

$$Y_i^{\text{진로성숙도}} = \beta_0 + \beta_1 X_i^{\text{독서시간}} + \beta_2 X_i^{\text{독서태도}} + \beta_3 X_i^{\text{문화활동}} + \beta_4 X_i^{\text{문화예술동아리}}$$

모형2 : 모형1 + 가정 문화자본(2개)

$$Y_i^{\text{진로성숙도}} = \beta_0 + \beta_1 X_i^{\text{독서시간}} + \beta_2 X_i^{\text{독서태도}} + \beta_3 X_i^{\text{문화활동}} + \beta_4 X_i^{\text{문화예술동아리}} + \beta_5 X_i^{\text{부모와문화활동}} + \beta_6 X_i^{\text{부모와문화소통}}$$

모형3 : 모형2 + 학교 문화자본(2개)

$$Y_i^{\text{진로성숙도}} = \beta_0 + \beta_1 X_i^{\text{독서시간}} + \beta_2 X_i^{\text{독서태도}} + \beta_3 X_i^{\text{문화활동}} + \beta_4 X_i^{\text{문화예술동아리}} + \beta_5 X_i^{\text{부모와문화활동}} + \beta_6 X_i^{\text{부모와문화소통}} + \beta_7 X_i^{\text{재학생문화자본수준}} + \beta_8 X_i^{\text{재학생동아리활성화}}$$

모형4 : 모형3 + (개인 문화자본×가정 문화자본) + (개인 문화자본×학교 문화자본)

Ⅳ. 연구 결과

1. 기술 통계

종속 변인, 연구 변인, 통제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값은 〈표 5〉에 제시되었다. 종속 변인인 진로성숙도는 6점 만점에 4.2점으로 나타났다. 연구 변인인 중학생의 개인, 가정, 학교 문화자본 수준은 보통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가정의 문화자본 수준이 다른 문화자본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5〉 변인들의 기술 통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진로성숙도	4.2	0.6	1.4	6.0	−0.2	0.4
계획성	4.0	0.9	1.0	6.0	−0.3	0.3
일에 대한 태도	4.5	0.7	1.2	6.0	−0.2	−0.1
자신에 대한 지식	4.5	0.7	1.0	6.0	−0.5	1.2
진로행동	3.8	0.9	1.0	6.0	−0.2	0.0
독서 시간	4.0	2.8	1.0	11.0	1.3	0.8
독서에 대한 태도	3.4	0.7	1.0	5.0	0.1	0.1
문화활동 경험	2.3	0.7	1.0	6.0	1.1	2.7
부모와 문화활동	2.5	0.9	1.0	5.0	0.0	−0.4
부모와 문화소통	2.3	1.1	1.0	5.0	0.6	−0.5
재학생 총체적 문화자본 수준	0.5	0.1	0.3	0.9	0.6	0.7
재학생 동아리 활성화 수준	3.0	0.5	1.9	4.3	0.4	0.1
가계 소득	370.5	216.3	30.0	4150.0	4.0	44.9
가계 소득(log)	5.8	0.5	3.4	8.3	−0.4	1.2
부모 학력	13.1	2.1	6.0	22.0	0.0	0.8
학업적 자기개념	3.3	0.7	1.0	5.0	0.0	0.2
부모의 학업지원	3.1	0.6	1.0	5.0	−0.1	0.7
교우와 진로대화	3.2	0.9	1.0	5.0	−0.5	0.2

〈표 6〉 연구변인의 빈도표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 여부	빈도	(%)
미참여	2,612	85.9
참여	427	14.1

2. 문화자본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1) 문화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

학생(1단계)부터 가정(2단계), 학교(3단계) 문화자본과 상호작용 효과(4단계)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중학교 단계에서 독서태도, 문화활동 경험,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 여부가 고교 진학 후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쳤다. 부모와 문화소통($\beta = 0.04, p < .01$) 수준도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수준의 문화자본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7〉 문화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β	β	β
(상 수)	0.00***	0.00***	0.00***	0.00***
개인배경(통제변인)				
성별	0.18***	0.18***	0.18***	0.18***
가계 소득	0.06***	0.06***	0.06***	0.06***
부모 학력	0.02	0.02	0.02	0.02
학업적 자기개념	0.17***	0.16***	0.16***	0.16***
부모의 학업지원	0.06***	0.05***	0.05***	0.05***
교우와 진로대화	0.14***	0.13***	0.13***	0.13***
개인 문화자본				
독서 시간	0.01	0.01	0.01	0.01
독서에 대한 태도	0.06***	0.06***	0.06***	0.06***
문화 활동 경험	0.06***	0.05**	0.05**	−0.08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	0.06***	0.06***	0.06***	−0.10
가정 문화자본				
부모와 문화활동		0.00	0.00	−0.13**
부모와 문화소통		0.04**	0.04**	0.05**
학교 문화자본				
총체적 문화자본			0.00	−0.01
동아리 활성화 정도			0.00	0.00
상호작용				
문화활동× 부모와 문화활동				0.20**
문화예술동아리 참여× 총체적 문화자본				0.16**
F-값	56.66***	47.76***	40.91***	36.56***
R^2	0.16	0.16	0.16	0.16
수정된 R^2	0.16	0.16	0.16	0.16

주) $^{*}p<.05$, $^{**}p<.01$, $^{***}p<.001$

2) 문화자본이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

첫째, 문화자본이 '계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모형 3에서 개인 문화자본의 문화활동경험($\beta = 0.04, p < .05$),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beta = 0.04, p < .001$)가 계획성에 영향을 미쳤다. 가정의 문화자본에서도 부모와 문화소통($\beta = 0.04, p < .01$)이 계획성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학교 문화자본은 계획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표 8〉 문화자본이 '계획성'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β	β	β
(상 수)	0.00***	0.00***	0.00***	0.00***
개인배경(통제변인)				
성별	0.10***	0.10***	0.11***	0.11***
가계 소득	0.05***	0.05***	0.05***	0.05***
부모 학력	0.03	0.03	0.03	0.03
학업적 자기개념	0.16***	0.16***	0.16***	0.15***
부모의 학업지원	0.05***	0.05**	0.05**	0.05**
교우와 진로대화	0.16***	0.15***	0.15***	0.15***
개인 문화자본				
독서 시간	0.01	0.01	0.01	0.01
독서에 대한 태도	0.02	0.02	0.02	0.02
문화 활동 경험	0.05**	0.04*	0.04*	−0.06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	0.04**	0.04**	0.05***	0.05***
가정 문화자본				
부모와 문화활동		−0.01	−0.01	−0.11**
부모와 문화소통		0.04**	0.04***	0.04**
학교 문화자본				
총체적문화자본			−0.01	−0.01
동아리활성화			−0.02	−0.02
상호작용				
문화활동× 부모와 문화활동				0.16**
F-값	39.78***	33.65***	28.96***	27.32***
R^2	0.12	0.12	0.12	0.12
수정된 R^2	0.11	0.12	0.12	0.12

주1) $^{*}p<.05$, $^{**}p<.01$, $^{***}p<.001$

둘째, 문화자본이 '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모형 3을 살펴보면 독서에 대한 태도($\beta = 0.11, p < .001$), 문화활동 경험($\beta = 0.03, p < .05$)이 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부모와 문화활동을 하거나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 문화자본에서는 재학생 동아리 활성화($\beta = 0.03$, $p < .05$)가 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

〈표 9〉 문화자본이 '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β	β	β
(상 수)	0.00***	0.00***	0.00***	0.00***
개인배경(통제변인)				
성별	0.19***	0.19***	0.18***	0.18***
가계 소득	0.04*	0.04**	0.04*	0.04*
부모 학력	0.06***	0.07***	0.06***	0.07***
학업적 자기개념	0.13***	0.13***	0.13***	0.13***
부모의 학업지원	−0.03	−0.02	−0.02	−0.02
교우와 진로대화	0.03	0.03	0.03	0.03
개인 문화자본				
독서 시간	−0.03	−0.03	−0.02	0.14
독서에 대한 태도	0.11***	0.11***	0.11***	0.11***
문화 활동 경험	0.02	0.03	0.03*	0.03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	0.02	0.02	0.02	0.09***
가정 문화자본				
부모와 문화활동		−0.02	−0.02	−0.02
부모와 문화소통		−0.02	−0.02	0.00
학교 문화자본				
총체적문화자본			−0.01	0.04
동아리활성화			0.03*	0.04*
상호작용				
문화예술동아리 참여× 부모와 문화소통				−0.09***
독서시간× 총체적 문화자본				−0.18***
F-값	31.63***	26.56***	23.06***	20.77***
R^2	0.10	0.10	0.10	0.10
수정된 R^2	0.09	0.09	0.09	0.10

주1) $^{*}p<.05$, $^{**}p<.01$, $^{***}p<.001$

셋째, 문화자본이 '자신에 대한 지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표 10〉와 같다. 모형 3을 살펴보면 개인 문화자본에서 독서에 대한 태도($\beta = 0.07$, $p < .001$)와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beta = 0.04$, $p < .01$)가, 가정 문화자본에서 부모와 문화소통($\beta = 0.05$, $p < .001$)이 자신에 대한 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학교의 문화자본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문화자본이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개인 문화자본에서

는 학생의 문화 활동 경험($\beta = 0.06$, $p < .001$)과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beta = 0.07$, $p < .001$)가, 가정 문화자본에서는 부모와 문화소통($\beta = 0.05$, $p < .01$)이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학교 문화자본은 진로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10〉 문화자본이 '자신에 대한 지식'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β	β	β
(상 수)	0.00***	0.00***	0.00***	0.00***
개인배경(통제변인)				
성별	0.08***	0.08***	0.08***	0.08***
가계 소득	0.06***	0.06***	0.06***	0.06***
부모 학력	0.01	0.01	0.01	0.01
학업적 자기개념	0.10***	0.08***	0.09***	0.09***
부모의 학업지원	0.07***	0.06***	0.06***	0.06***
교우와 진로대화	0.07***	0.06***	0.06***	0.07***
개인 문화자본				
독서 시간	0.02	0.02	0.02	−0.11
독서에 대한 태도	0.07***	0.07***	0.07***	0.07***
문화 활동 경험	0.02	0.00	0.00	0.00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	0.04**	0.04**	0.04**	−0.15**
가정 문화자본				
부모와 문화활동		−0.01	−0.01	−0.07
부모와 문화소통		0.05***	0.05***	0.05***
학교 문화자본				
총체적문화자본			0.02	0.00
동아리활성화			0.01	0.01
상호작용				
문화예술동아리 참여× 부모와 문화소통				0.16**
독서시간× 총체적 문화자본				0.19**
F-값	21.74***	18.76***	16.16***	14.93***
R^2	0.07	0.07	0.07	0.07
수정된 R^2	0.06	0.07	0.07	0.07

주1) $^{*}p<.05$, $^{**}p<.01$, $^{***}p<.001$

〈표 11〉 문화자본이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β	β	β
(상 수)	0.00***	0.00***	0.00***	0.00***
개인배경(통제변인)				
성별	0.17***	0.17***	0.18***	0.17***
가계 소득	0.03*	0.03*	0.03*	0.03*
부모 학력	−0.02	−0.03	−0.02	−0.03
학업적 자기개념	0.13***	0.12***	0.12***	0.12***
부모의 학업지원	0.07***	0.06***	0.06***	0.06***
교우와 진로대화	0.15***	0.14***	0.14***	0.14***
개인 문화자본				
독서 시간	0.02	0.02	0.02	0.02
독서에 대한 태도	0.01	0.01	0.01	0.01
문화 활동 경험	0.07***	0.06***	0.06***	−0.05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	0.07***	0.07***	0.07***	0.07***
가정 문화자본				
부모와 문화활동		0.02	0.02	−0.10
부모와 문화소통		0.05**	0.05**	0.05**
학교 문화자본				
총체적문화자본			0.00	0.00
동아리활성화			−0.02	−0.02
상호작용				
독서시간× 부모와 문화활동				0.17**
F-값	43.25***	36.68***	31.51***	29.76***
R^2	0.13	0.13	0.13	0.13
수정된 R^2	0.12	0.13	0.12	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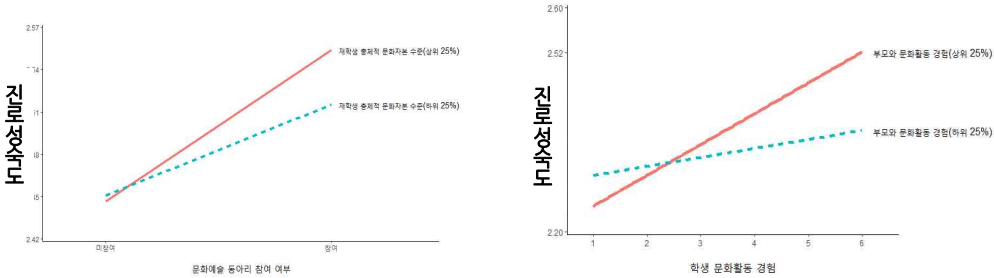
주1) $^{*}p<.05$, $^{**}p<.01$, $^{***}p<.001$

3) 가정 및 학교 문화자본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2)

(1) 개인 문화자본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 대한 가정·학교 문화자본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가정 및 학교 문화자본 수준에 따라 학생 차원의 문화자본과 진로성숙도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모형 4에서 가정, 학교 문화자본의 상호작용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였다.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가정, 학교 문화자본을 기준으로 상위 25%, 하위 25%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생 개인 문화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가정 및 학교 문화자본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결과는 [그림 1]과 같으며, 부모와 함께하는 문화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학생의 문화활동 경험과 상호작용하여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더 크게 향상됨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 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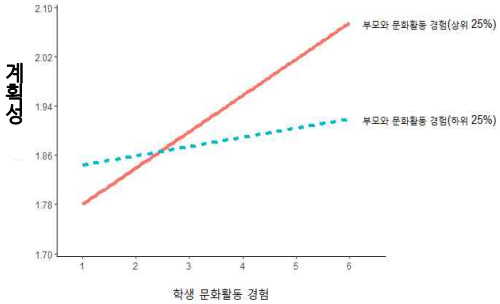
생의 총체적 문화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의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와 상호작용하여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더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상호작용이 나타난 상대적 영향력은 부모와의 문화활동이 $\beta = 0.20$, 재학생의 총체적 문화자본이 $\beta = 0.16$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형 4의 R^2값은 0.16이었다.



[그림 1] 부모와 문화활동 경험 및 재학생 총체적 문화자본의 조절효과(상, 하 구분)

(2) 개인 문화자본과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의 관계에 대한 가정·학교 문화자본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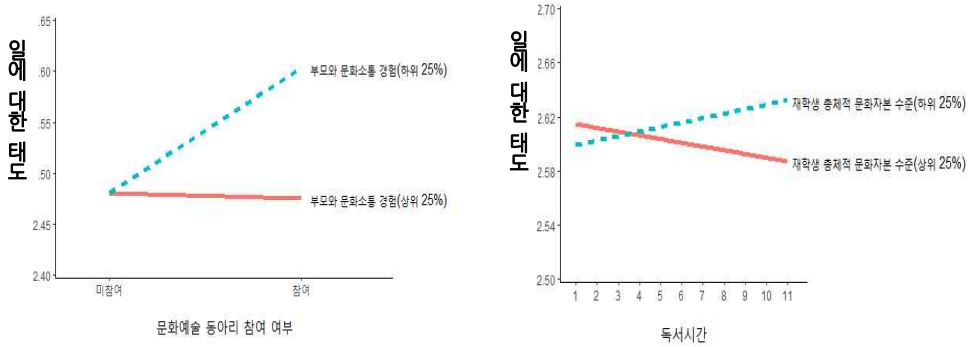
첫째, 가정 및 학교 문화자본 수준에 따라 학생 개인 문화자본과 '계획성'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표 8〉의 모형 4에서의 문화자본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이는 학생 개인이 부모와의 문화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학생의 문화활동 경험과 상호작용하여 진로성숙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때 부모와의 문화활동의 상대적 영향력 크기는 $\beta = 0.16$이다. 최종 모형 4의 R^2값은 0.16이다.



[그림 2] 계획성에 대한 조절효과(상, 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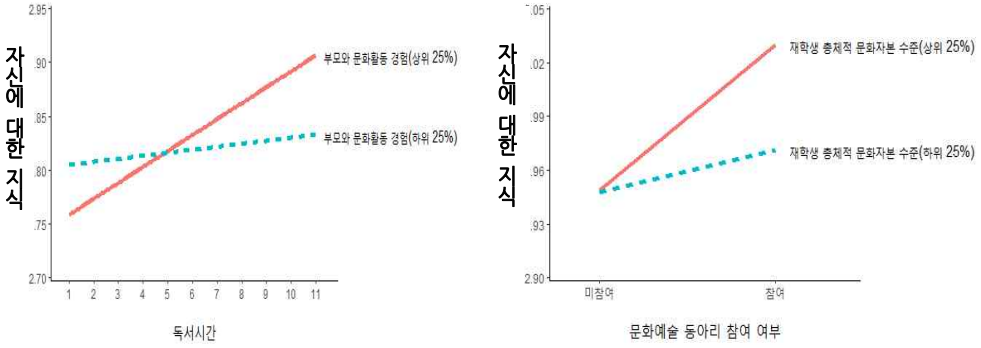
둘째, 가정 및 학교 문화자본 수준에 따라 학생 개인 문화자본과 '일에 대한 태도'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먼저, 문화예술 동아리를 참여한 학생들이 부모와 문화적 소통을 많이 하게 되면 학생의 일에 대한 태도가 향상됨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독서시간

이 적은 학생들이 총체적인 문화자본 수준이 높은 학교에 재학하면 일에 대한 태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독서시간이 많은 학생들은 재학생 문화자본 수준이 낮아질수록 그들의 진로 가치관도 함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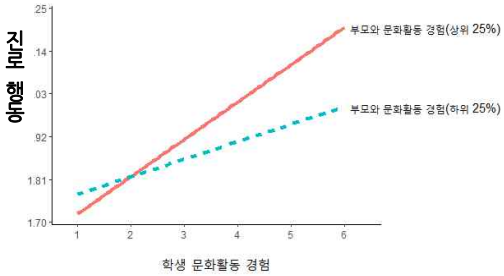
[그림 3] 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조절효과(상, 하 구분)

셋째, 학생 개인의 문화자본이 '자신에 대한 지식'과의 관계에서 가정 및 학교의 문화자본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먼저, 독서시간과 자신에 대한 지식의 관계에서 부모와 문화활동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학생이 독서를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지식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지만, 부모와 문화활동을 함께 한다면 자신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었다. 이때 부모와 문화활동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는 $\beta = 0.16$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는 자신에 대한 지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이들이 재학생의 총체적 문화자본이 높은 학교에 다니게 되면 자신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었다. 재학생 총체적 문화자본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는 $\beta = 0.19$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종 모형 4의 R^2값은 0.07로 비교적 낮았다.



[그림 4] 자신에 대한 지식에 대한 조절효과(상, 하 구분)

넷째, 가정 및 학교 문화자본 수준에 따라 학생 개인의 문화자본과 '진로행동'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앞서 〈표 11〉의 모형 4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상호작용을 [그림 5]와 같이 표현하였다. 독서시간이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부모와 연극이나 영화 관람을 함께 한다면 그 학생의 진로행동 수준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와 문화활동의 상대적 영향력 크기는 $\beta = 0.17$ 이었다. 최종모형의 R^2값은 0.13이었다.



[그림 5] 부모와 문화활동 경험(상, 하 구분)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 학생 개인에게 체화된 문화자본과 환경요인으로서 가정 및 학교 차원의 문화자본 수준이 3년 후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시점에서 진로성숙도와 그것의 하위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 개인의 문화자본이 진로성숙도 및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학생이 속한 가정 및 학교 문화자본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개인 문화자본에서 독서에 대한 태도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독서시간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로부터 진로성숙도와 관련하여 문화자본의 축적은 독서시간의 양이 아닌 독서 태도와 같은 질적 요소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정 문화자본에서는 부모와 문화소통이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함께 '정치 및 사회문제를 토론'하거나 '책, 영화, TV 프로그램에 대해 토론'을 통해 자녀들은 가정이라는 장(field)에서 아비투스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다시 일정시간이 지난 후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문화자본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진로성숙도의 4가지 하위요인(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 자신에 대한 지식, 진로행동)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개인 문화자본에서는 독서 태도가 일에 대한 태도 및 자신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가 계획성 및 진로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문화자본에서는 부모와 문화소통이 계획성, 자신에 대한 지식 그리고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문화자본에서는 재학생의 동아리활성화 정도가 자신에 대한 지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가정 및 학교의 문화자본 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학생 개인의 문화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가정 및 학교의 문화자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가정 문화자본의 효과를 살펴보면, 학생의 문화활동이 진로성숙도와 그 하위요인인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 진로행동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부모와 문화활동을 자주 하는 학생일수록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의 문화예술 동아리참여가 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부모와 문화소통이 많은 학생일수록 더 향상되었다. 그리고 독서 시간이 자신에 대한 지식에 미치는 효과는 부모와 문화활동이 많은 학생일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요컨대 학생 차원에서의 문화활동이 가정에서 학생과 부모가 함께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질 경우, 자녀의 진로성숙도는 더욱 효과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 문화자본의 효과를 살펴보면, 학교 문화자본의 수준에 따라 개인 문화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다. 즉, 학생 개인 차원에서의 문화예술동아리 참여와 재학생들의 총체적 문화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절효과가 발생하여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학생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활동의 효과는 학교 차원의 문화활동 정도 즉, 교우효과(peer effect)와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진로성숙도에 보다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에게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문화자본의 효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로서 문화자본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 이론들을 종합해서 추론해보면, 문화자본은 학생에게 서서히 축적되면서 그들의 내면적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문화자본은 단 시간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도 중학교 단계에서의 문화적 활동과 경험이 고교 진학 후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학생의 진로발달을 위해서는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문화 활동 경험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유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중학교 단계에서 시행 중인 자유학년제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학생들의 진로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발달의 면에서 독서에 대한 올바른 태도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보여주었다. 즉, 오랜 시간 앉아 시간을 소비하는 독서생활이 아닌 학생 스스로 즐기는 독서를습관화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올바른 독서 태도형성을 위해 부모와 교사는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고 교우 또는 부모와 대화하며 독서를 취미와 여가생활로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 중인 자유학년제나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학생들이 이를 통해 독서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문화 활동을 체험하며 문화와 관련된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게 될 때 진로선택 및 발달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무엇보다 부모들은 자녀와 음악회, 미술관, 영화관 관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학생만이 아닌 부모가 함께 경험하려 노력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녀들이 문화경험을 통해 느낀 생각이나 의견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소통과 기회를 마련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인지적, 정서적으로 더욱 발달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진로선택과 관련한 생각을 보다 구체화하는 기회를 형성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 따르면 학교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문화적 취향과 태도의 수준이 높고 재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가 많을 때, 학생 개인 차원의 문화자본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 차원의 문화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학교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문화관광부(2004)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단기적, 일회적 행사가 아닌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연구 변인인 문화자본은 2007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종속 변인인 진로성숙도는 2009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후속 연구는 중학교 시점과 고등학교 시점 모두 문화자본과 진로성숙도를 측정하여 두 기간 문화자본의 변화량과 진로성숙도의 향상 정도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성장 모형 설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학생, 가정, 학교의 문화자본을 측정함에 있어 기존의 종단연구에 포함된 설문 문항을 사용했고, 이와 관련한 문항으로 문화자본의 개념을 정의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 청소년 대상 문화자본 측정 도구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의 문화자본 측정을 위한 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자본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질적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학생 개인의 문화자본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가정 및 학교 문화자본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문화자본 형성이 진로성숙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후속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면접과 관찰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질적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자본과 진로성숙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경근, 변수용(2007). 한국사회에서의 학업성취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7**(1), 23-51.

김민영(2012). 청소년 문화자본이 역량형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 109-133.

김성식, 김양분, 강상진, 김현철, 신종호, 박성호, 민병철(2007).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Ⅲ) 조사개요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수정, 이명진, 최샛별(2015).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개인의 문화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 29**(2), 4-24.

김충기(1999). 진로발달 접근을 통한 진로 계획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0,** 135-182.

김현숙(2011). 부모의 인적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0,** 123-150.

박현진, 김영화(2010). 가정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영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잠재 성장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0**(4), 55-82.

배상훈 외(2014). 중학교 단계 진로지도가 고교 진학 후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2**(2), 119-143.

백병부, 김경근(2007). 학업성취와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구조적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17**(3), 101-129.

변수용, 김경근(2008). 한국 고등학생의 교육결과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8**(2), 53-82.

안주영, 윤선미, 김찬종, 최승언(2017). 일반계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관련 진로선택 및 변화 이해 : 과학진로 문화자본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7**(1), 49-61.

엄미선, 한상미(2017).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자치행정학보, 31**(4), 189-206.

이경은(2014). 문화자본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종단 분석을 통한문화재생산 이론과 문화이동 이론의 검증.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이상수, 이명진(2016). 한국 사회에서 문화자본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 **문화와 사회, 21,** 339-380.

이성회(2013). 부르디외의 '아비투스'·장·자본의 상호형성 메커니즘. **교육사회학연구. 23**(2), 151-171

임은미(2004). 청소년 진로성숙도의 발달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교육학연구, 42**(3), 325-348.

임현정, 김난옥(2011). 학교활동 경험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2**(3), 261-281.

장미혜(2002a). 사회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한국사회학, 36**(4), 223-251.

장미혜(2002b).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 계급별 소비 양식의 차이. **경제와 사회,** 53

전경애(2001). 가정의 문화자본이 학생의 직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선영(2014). 수련활동 · 교류활동 · 문화활동 참여수준이 자기주도적 및 성인의존적 진로의사결정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중학생 시기와 고등학생 시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3**(4), 57-66.

조은(2001). 문화 자본과 계급 재생산: 계급별 일상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40.**

최샛별(2006). 한국사회에 문화자본은 존재하는가? **문화와 사회,** 1, 123-158.

최샛별, 이명진(2013). 문화자본 지수의 개념화와 측정. **한국사회학, 47**(2), 31-60.

최예슬, 오헌석(2011). 중학생 직업포부의 변화추이, 유형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7**(3), 237-263.

홍성민(2004). **피에르 부르디외와 한국사회**. 서울: 살림.

Bourdieu, P.(1977). Cultural reproduction and social reproduction. *Power and ideology in education*, New York: Oxford, 487-511.

Bourdieu(1986).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 G.(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Greenwood, 241-258.

Bourdieu, P. and J.C. Passeron(1977).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London: Sage.

DiMaggio, P.(1982).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 The impact of status culture participation on the grades of U.S.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47,* 189-201.

Super, D.(1955). Dimensions and measurements of vocational maturity. *The Teachers College Record, 57*(3), 151-163.

* 논문접수 2019년 5월 2일 / 1차 심사 2019년 6월 7일 / 2차 심사 2019년 11월 14일 / 게재승인 2019년 11월 14일

* 박보경: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행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E-mail: lesleypark@naver.com

* 배상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교육행정 및 Workforce Education and Development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sbae@skku.edu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apital at the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Levels in Middle Schools and Career Maturity in High Schools*

Park, Bo Kyoung**
Bae, Sang H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cultural capital at level of individual, families, and school of secon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career maturity when they become second grade high school students. This study also examined whether the impact of individual cultural capital on career maturity differs by their families' and schools' cultural capital.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cultural capital at the student, family, and school levels. Dependent variables include career maturity and its sub-factors - planning, work attitude, self-knowledge, and career behavior.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oth the reading attitudes of students and the cultural communication with parent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impact on improving career maturity in high schools. Second, the reading attitudes were found to have positive impact on work attitude and self-knowledge. The participation in cultural arts clubs is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planning and career behavior. The frequent cultural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impact on planning, self-knowledge and career behavior. Regarding cultural capital of the school that they attended, how actively schools implemented clubs activities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ir self-knowledge. Third, the effects of students' cultural capital on their career maturity and its sub-factors generally differed according to the level of families' and schools' cultural capital.

Key words: Career Maturity, Cultural Capital,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Hierarchical Analysis, Mediating Effects

* This study was modified and supplemented based on a doctoral dissertation of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General Studies.
** First author, Ph. D., Sungkyunkwan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